



## 국제경쟁력에 적극 대응해야

변동준 / 본회 비상근 이사  
삼영전자공업(주) 사장

다사다난했던 '92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급년도 전자산업을 회고하는 내용의 원고를 부탁받고 막상 무엇을 적어야 하나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움은 무슨 연유일까, 요즘 세간의 이야기나 각종 매스컴은 연일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정치이야기만이 신문의 지면을 넓게 독차지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면의 이야기는 어둡기 짝이 없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저가제품에 밀려나는 한국제품, 쌀시장 개방압력가중, 불경기 등등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웃 일본의 전자산업 경기 그중 특혜, 부품산업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다. 굳이 남의 나라 경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전자산업이 곤경에 처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급격한 경쟁력 상실이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그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 등에 힘입어 수출산업의 주력으로써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전자산업은 급속히 내외 경쟁력을 잃었

고 시장상황도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최근 국내 한 전자관련 간행물에서 지적한것처럼 전자부품, 기기, 기계의 수입증가가 국제 경쟁력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심각한 양상은 특히 우리와 같은 부품업체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어렵게 개발해 놓은 부품을 일본과 같은 전자선진국은 덤핑행위를 통하여 국산개발제품의 판매확산에 쐬기를 박는 예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다.

특히 전자제품의 수입증가는 우리 무역에 큰 손실을 가져온 바 한국전자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자부품의 부단한 개발과 기본적 부품의 국내완전 자체조달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일것이다.

둘째, 기업경영환경의 불리한 여건 타개이다. 이미 지나간 홍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산업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극심했던 지난 '88~'89년도의 노사분규이후 기업에 대한 상황전개는 실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우리산업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우리산업의 강점은 근면성실한 근로자의 자세, 그나마 낮은 임금, 근로자의 투철한 사명감 등을 들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

한가 노사분규 이전에 비해 임금은 많이 상승하였으나 그에 비해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 아니 뒤로 퇴보한 부분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것이다. 우리가 자랑했던 근면·성실과 투철한 사명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우리산업 전체에 팽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자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여러가지 주변 여건이 우리산업에 한결같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삼영과 같이 AL전해콘덴서나 센서 등 부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의 고충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소재산업이 고르게 발달하지 못함에 따라 균형적인 개발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완벽한 전자제품뒤에는 항상 완벽한 전자부품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것이다. 두서없는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다가오는 1993년의 희망찬 새해에 기대를 거는 한편, 모든 전자공업인의 건승을 빌어마지 않는다.